

---

#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구·경북 지역 치기공(학)과를 중심으로 -

정인호\*, 임병철\*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In-Ho Jung\*, Byung-Chul Lim\*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Gimcheon University

---

**요약**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로발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 그리고 진로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진로결정의 문제를 지닌 대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치기공(학)과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을 분석하고, 진로결정 상담시에 도움을 얻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주제어** : 경력, 진로결정, 진로준비, 영향, 치기공

**Abstract** Selecting one's care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for individuals because it will have a strong influence on his/her life. Especially for college stud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getting ready to step into the society after the graduation, career decision making become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and a real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cision 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progress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college students, and to test hypotheses which are related to the effects of counseling programs on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 **Key Words** : career, decision, preparation, Effect, Dental Technology

---

## 1. 서론

진로란 생애, 경력, 직업 등으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장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으로 인식되며, 생애 직업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1]. 치기공(학)과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생과 그들은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취업

정보실과 대중매체,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2]. 김봉환, 김

---

\*교신저자 : 정인호(jih4611@hanmail.net)

접수일 2012년 5월 26일 수정일 2012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5일

계현[3]은 개인의 진로문제와 관련된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뿐 아니라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시험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 준비(행동적 영역)는 의사결정(인지적 영역)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4].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있어 진로결정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입문하기 위해 실질적인 준비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

2010년 5월 파이낸셜 뉴스[6]에 따르면 지난 5월 축제 시즌을 맞아 대학생 6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올해 축제에 불참했거나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 '취업부담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40.4%)'를 꼽았다. 대학생들은 그들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취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실제적인 준비행동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7]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이 동아리를 선택할 때 개인의 취미보다는 자격증 준비 혹은 공모전 참가 등 동아리 활동이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될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구직자 사이에서 학점, 영어성적 등의 조건을 이르는 말)쌓기를 통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주경제 기사[8]에 따르면 입학할 압둔 예비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취업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기공사는 CAD/CAM의 준비된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해 스펙과 스킬 두 가지 다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생들에게 대학 졸업에 앞서 진로준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에게 진로(직업)에 대한 준비를 위한 진로결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D광역시와 G도에 있는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직

접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2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응답한 설문지 총 50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6부를 제외하고 454부(90.8%)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치기공(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 등[9]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0]가 우리 문화에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을 위해서 김봉환[2]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내용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진로결정수준이 Cronbach's  $\alpha = 0.840$ , 진로준비행동이 Cronbach's  $\alpha = 0.862$ 이었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응답결과를 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제에 따른 대학생할 만족도 및 진로만족도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하위변인끼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454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이 291명(64.1%), 여성이 163명(35.9%)이었고, 연령은 23세 이하가 398명(87.7%)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었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이 292명(64.3%)이고, 2학년은 97명(21.4%)이며, 3학년은 65명(14.3%)으로 나타났다. 학제는 전문대가 320명(70.5%)이고, 4년제가 134명(29.5%)로 3년제 재학생이 많았고, 거

주지역은 대도시가 245명(54.0%), 중·소도시가 152명(33.5%)이며, 농·어촌 거주가 57명(12.6%)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61명(57.5%)이고, 약간 만족이 131명(28.9%)이며, 매우 불만족은 19명(4.2%)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직업)는 전공인 치과기공을 반드시 할 것이 다가 314명(69.2%)으로 높았고, 치과기공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 같다가 52명(11.5%)이며, 아직 졸업 후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다가 88명(19.4%)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변인간의 검정분석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변인간의 검정분석에서 진로결정, 진미결정,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p>0.05$ ),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변인간의 검정분석에서는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변인간의 검정분석에서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454)

variables	category	person(%)
gender	male	291(64.1)
	female	163(35.9)
age(years)	≤23	398(87.7)
	≥24	56(12.3)
grade	first	292(64.3)
	second	97(21.4)
	third	65(14.3)
	fourth	.
faculty	college	320(70.5)
	university	134(29.5)
residential area	great city	245(54.0)
	small city	152(33.5)
campus lif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57(12.6)
	very satisfied	43(9.5)
	some satisfied	261(57.5)
	some dissatisfied	131(28.9)
career decision	very dissatisfied	19(4.2)
	only dental technician	314(69.2)
	career decided	
	other career decided	52(11.5)
	not decided	88(19.4)
total		454(100.0)

“성별, 연령, 학년,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 및 진로(직업)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과 대학생활 만족도 간에는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카이제곱 값은 22.45이다.

대학생활 만족도를 먼저 분석해 보면 성별은 남성이

[Table 2] Test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gender, age, faculty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vision		Career decision	Career Indecision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gender	Male n=291±(S.D)	3.43±(1.11)	3.48±(0.72)	3.18±(0.94)	2.27±(0.97)	2.19±(1.06)
	Female n=163±((S.D)	3.39±(1.05)	3.63±(0.76)	3.22±(0.93)	2.26±(0.93)	2.11±(0.78)
	<b>t-value</b>	<b>0.35</b>	<b>-2.10</b>	<b>-0.47</b>	<b>0.13</b>	<b>0.78</b>
	<b>p-value</b>	<b>0.72</b>	<b>0.03</b>	<b>0.63</b>	<b>0.89</b>	<b>0.43</b>
age	≤23 n=398±(S.D)	3.39±(1.10)	3.52±(0.73)	3.16±(0.90)	2.23±(0.93)	2.16±(1.03)
	≥24 n=56±(S.D)	3.58±(1.02)	0.73±(0.77)	3.46±(1.12)	2.54±(1.12)	2.19±(0.98)
	<b>t-value</b>	<b>-1.21</b>	<b>-1.24</b>	<b>-2.24</b>	<b>-2.27</b>	<b>-0.17</b>
	<b>p-value</b>	<b>0.22</b>	<b>0.21</b>	<b>0.02*</b>	<b>0.02*</b>	<b>0.85</b>
faculty	College n=320±(S.D)	3.42±(1.08)	3.51±(0.75)	3.22±(0.98)	2.40±(0.97)	2.19±(1.05)
	University n=134±(S.D)	3.42±(1.12)	3.60±(0.70)	3.13±(0.83)	1.95±(0.84)	2.10±(0.95)
	<b>t-value</b>	<b>-0.03</b>	<b>-1.26</b>	<b>0.90</b>	<b>4.63</b>	<b>0.84</b>
	<b>p-value</b>	<b>0.97</b>	<b>0.20</b>	<b>0.36</b>	<b>0.00**</b>	<b>0.39</b>

\*p<0.05, \*\*p<0.01, \*\*\*p<0.001

[Table 3] Cross-tabulation analysis of gender, age, grade, faculty according to the College of life satisfaction and career (job)

Division		College of Life Satisfaction				Career (job)		
		①	②	③	④	①	②	③
gender	Male(291)	32(11.0)	166(57.0)	82(28.2)	11(3.8)	198(68.0)	35(12.0)	58(19.9)
	Female(163)	11(6.7)	95(58.3)	49(30.1)	8(4.9)	116(71.2)	17(10.4)	30(18.4)
	$\chi^2$ -value	2.46				0.50		
	p-value	0.48				0.77		
age	≤23(398)	37(9.3)	230(57.8)	115(28.9)	16(4.0)	275(69.1)	48(12.1)	75(18.8)
	≥24 (56)	6 (10.7)	31 (55.4)	16 (28.6)	3 (5.4)	39 (69.6)	4 (7.1)	13 (23.2)
	$\chi^2$ -value	0.36				1.52		
	p-value	0.94				0.46		
grade	1(292)	32(11.0)	182(62.3)	71(24.3)	7(2.4)	207(70.9)	36(12.3)	49(16.8)
	2(97)	6 (6.2)	46 (47.4)	35 (36.1)	10 (10.3)	57 (58.8)	13 (13.4)	27 (27.8)
	3(65)	5(7.7)	33(50.8)	25(38.5)	2(3.1)	50(76.9)	3(4.6)	12(18.5)
	$\chi^2$ -value	22.45				10.00		
p-value	0.00**				0.04			
faculty	College(320)	32(10.0)	179(55.9)	98(30.6)	11(3.4)	224(70.0)	31(9.7)	65(20.3)
	University(134)	11(8.2)	82(61.2)	33(24.6)	8(6.0)	90(67.2)	21(15.7)	23(17.2)
	$\chi^2$ -value	3.39				3.54		
	p-value	0.33				0.17		

\*p<0.05, \*\*p<0.01, \*\*\*p<0.001

약간 만족으로 166명(57.0%)으로, 여성은 95명(5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3세 이하에서 230명(57.8%), 24세 이상에서는 31명(55.4%)이 약간 만족으로, 학년은 1학년이 182명(62.3%), 2학년이 46명(47.4%), 3학년이 33명(50.8%)로 약간 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 불만족의 학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제는 3년제 학생 320명중에서 179명(55.9%)이, 4년제 학생은 134명 중에서 82명(61.2%)으로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약간 만족으로, 대학생활 만족도 면에서는 3년제, 4년제 학생 변수 간에 약간 만족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진로(직업)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성별은 남성이 198명(68.0%), 여성은 116명(71.2%)으로, 연령은 23세 이하에서는 275명(69.1%), 24세 이상에서는 39명(69.6%)이며, 학년은 1학년이 207명(70.9%), 2학년이 57명(58.8%), 3학년이 50명(76.9%)이었고, 학제는 3년제 학생이 224명(70.0%), 4년제 학생이 90명(67.2%)로 전공인 치과기공을 반드시 할 것이다.를 선택하여 높게 나타났다.

치기공(학)과 재학생의 진로결과과 진로준비행동 변인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나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variables	Mean ± (S.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s			
		Career decision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Career decision	3,422±(1,094)	-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3,201±(0,942)	0.117*	-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2,270±(0,960)	0.179**	0.422**	-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2,167±(1,026)	0.146**	0.320**	0.610**	-

\*p<0.05, \*\*p<0.01, \*\*\*p<0.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variables	Mean ± (S.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s			
		career indecision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career indecision	3,540±(0.742)	-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3,201±(0.942)	0.033	-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2,270±(0.960)	0.017	0.422**	-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2,167±(1.026)	-0.027	0.320**	0.610**	-

\*p<0.05, \*\*p<0.01, \*\*\*p<0.001

타낸 것이다[표 4]. 구체적으로 진로결정과 진로결정 간의 상관계수는 1이며, 자기변수와의 상관계수는 항상 1이고, 행렬표에서는 대각선상에 나타난다. 각 변수들 간에는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높게 나타나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0.610)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잘되고(r=0.422), 정보수집 활동을 잘 할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20).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진로미결정과 진로준비행동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나타낸 것으로[표 5]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0.610)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잘되고(r=0.422), 정보수집 활동을 잘 할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0.320)(p<0.01).

####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소재 치기공(학)과 재학생 454명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결정 2문항과 진로 미결정 16문항의 총점과,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정보수집활동 3문항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10문항,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3문항의 총점들을 갖고, 그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치기공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

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응답결과를 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성별, 연령, 학년,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 및 진로만족도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하위변인끼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 관련 논의

진로결정수준은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52점(표준편차0.05)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도 평균 2.42점(표준편차0.05)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선행연구[3]의 결과에서도 학과나 학년에 관계없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결정과 함께 실제적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가설검증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경북에 재학 중인 치기공(학)과 학생 454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응답자 중 남성이 64.1%, 여성이 35.9%이고, 연령은 23세 이하가 87.7%, 학년은 1학년이 64.3%, 2학년 21.4%, 3학년 14.3%이었으며, 학제는 전문대 70.5%, 4년제 29.5%였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54.0%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

이 57.5%이며, 진로(직업)는 전공인 치과기공을 반드시 할 것이다가 69.2%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치기공학과 전공 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제시된 변인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로는 “치기공학과 전공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였다.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2, 11]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 연구[9, 10, 12]도 있어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치기공학과 전공 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검증 결과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변인인 정보수집 활동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간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의 증가와 진로결정수준이 발달적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2, 5, 13-15]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영숙 등[1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입학한 경우 혹은 제대한 복학생의 경우 목표의식이 더 뚜렷해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해보면 연령이 진로결정수준에 중요한 변수라는 결론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다.

“치기공학과 전공 대학생의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검증 결과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제 재학생들이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하위변인끼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는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변인인 진로결정에서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잘되고, 정보수집 활동을 잘 할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미결정에서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잘되고, 정보수집 활동을 잘 할수록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치기공(학)과 관련 전공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기공(학)과를 선택한 재학생의 대부분이 전공인 치과기공을 직업으로 할 것이기에 저학년 시기에는 자기탐색과 진로에 대한 방향 비전을 확립시키고, 고학년 시기에는 직업탐색 및 취업준비 강화훈련과 같은 구조화된 틀을 마련하여 전공자의 진로결정과 준비과정을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듯이, 전공자의 개인별 특성(복학생) 및 진로와 관련된 사고체계나 신념 등을 파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 학과 교수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에,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아개념이나 자아실현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사회·심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치과기공사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력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1] Choong Ki Kim.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ing. Dongmunsa, 2000.
- [2] Bong Wha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thesis for a doctorate., 1997.
- [3] Bong Whan Kim, Kay Hyo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rea Counseling Society, 19, 311-333, 1997.

[4] Kay Hyon Kim. research of counseling psychology -Themes & Methodology-. Hakjisa, 2000.

[5] Eun Jung Kim.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 master's thesis, 2011.

[6] Fnnews.com. College students 40% participation in college festival "as a preparation for employment.". Seoul: Fnnews, 2010.

[7] Ccdailynews.com. College student club selection a hobby rather than job first. Seoul: ccdailynews, 2010.

[8] Ajnews. com. Prospective students 54% worried "prior to admission, employment". 2011.

[9] Osipow, S. H., Carney, C.G., & Barak,A.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233-243, 1976.

[10] Hang Ja Kho. (A)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thesis for a doctorate, 1992.

[11] Eun Young Son, Jin Hee S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pp. 399-417, 2005.

[12] Young Sook Kang, Eun Jung Lee.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Major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in Jeon-buk A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pp. 1-22, 2006.

[13] Hee Sun Ka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tress Confrontation Strategies, and Career.

[14] Preparation Behavior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pp. 41-155, 2010.

[15] Jong Geol Kim.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ian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 a thesis for a doctorate, Kyonggi University, 2007.

저자소개

정 인 호(In-Ho Jung)

[정회원]



- 2003년 2월 :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08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김천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2005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의료, 치기공재료

임 병 철(Byung-Chul Lim)



- 1989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석사)
- 2000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1985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 보건의료, 총의치기공학